2024년 / 11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1월 28일(목)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2024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 안내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던 귀한 기운을 다시금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2024. 12. 14(토) 18:00~20:00

○ 장소: 노랑토랑 연회장(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62 / 063-229-7948)

○ 주요일정

- 개회식
- 우수 회원 시상
- 축하공연
- 도서 나눔을 위한 기부 도서 모집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 바라며 도서나눔에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출간 5년 이내의 책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증오가 낳은 광기의 깃발 – 1946. 11. 30.

서양 종교가 들어온 이래 평안도는 한반도에서 기독교 교세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 그 중 평안남도는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이 깊었다. 그런데 이 평양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고 "성직자 1명은 1개 사단 병력의 군인과 맞먹는다."는 레닌의 주장을 믿고 따르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그들과 함께 김일성은 입맛에 맞는 정부 조직을 갖춰 나간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불문하고 기독교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 청년들,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청년들은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38선을 넘어 왔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주먹과 공산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밖에 없는 이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평안도 출신들 뿐 아니라 황해도, 함경도 등 이북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도 몰렸다. 이들이 1946년 11월 30일 '서북청년회'의 깃발을 들어올린다.

서북청년단의 공식 명칭은 서북 청년회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실 경찰이나 군대가 하기 힘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으면서 동시에 그 적개심을 빨갱이에게 털어놓는 일이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주도에 보내진다. 서북청년단과 제주도의 질긴 연은 1947년 4월 부임한 유해진 도지사가 서북청년단 출신 7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11월 서북청년단제주도단부가 결성됐고, 4·3 이전까지 제주에 파견된 서북청년단원은 제주읍 300명, 각면 40~50명 등 총 760명에 달했다. 1948년 11~12월 사이에는 서북청년단원 1000여명이 경찰이나 경비대 옷을 입고 추가로 투입돼 무장대 진압에 나섰다.

특히 여순항쟁이 일어난 후 1948년 11월 제주경찰에 배속된 서북청년단원 200여명은 이른바 '200명 부대'로 불리며 제주도에서 각종 만행의 선두에 섰다. 이들은 처음에는 '경찰 보조원' 신분으로 월급・보급품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관공서를 등치거나 민간인들로부터 식량・의류 등을 강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1948년 11월 9일엔 제주도청 총무국장인 김두현씨가 "배급품을 달라"는 서북청년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끌려가 폭행당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가 공무원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민간인들에 대한 행패는 하늘을 꿰뚫을 지경이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잡아 들여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다. 잡혀간 이들을 풀어주겠다며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 금품을 목적으로 억울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들은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을 사탄에 대한 그것과 동일시했다. 사람의 가슴에 죽창을 박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사람을 태우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워낙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보니 쓸려 들어온 우익 인사도 용서 없이 죽였던 것이다.

4.3항쟁을 다룬 영화 <지슬>에서 "우리 오마니도 빨갱이 손에 갔소." 하면서 할머니를 불태워 죽이는 모습의 평안도 사투리 군인은 바로 그들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은 가장 비기독교적으로 사람을 학살했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십계명을 어겼다.

대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닌 증오이고, 믿음에 의거한 행동이 아닌 배신이다. 서북청년단은 자신들이 박해받고 배신당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증오를 합리화했고 이를 반공과 결부시켜 나아갈 명분으로 삼았고 그 나아가는 길에 널린 모든 방해물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애국과 신앙으로 생각했다. 백범 김구의 암살범 안두희 역시 평안도에서 나고 자라 1947년에 서북청년회에 가입했었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증오를 방아쇠로 저지른 일은 너무도 참혹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만개된 증오란 열매의 씨앗 가운데에는 그들이 뿌린 것도 많았다. 서북청년단이 1946년 11월 30일 광기의 깃발을 올렸다.